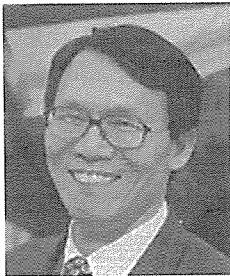


# 과학기술의 재미군단 찬가

IMF 경제회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시대에, 큰 틀의 사회개혁과 맞물려 과학기술개혁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경쟁력만이 노동집약형 개도국시대를 벗어나 선진국형 경제발전을 이루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예산에서 3~4천억원을 대학에 배정, 1만명 정도의 교수들에게 연구비로 지급해서 재미군단의 연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나라의 과학기술개발을 하루빨리 대학교수로 이룬 재미군단에 맡겨야 한다.



權 五大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교수들 연구 부족’, ‘교육 소홀’, ‘철밥통’, 등등.

개혁시대에 들리는 질타의 소리가 다. 그래서 대학개혁은 이 시대의 화두로 올라왔다. 아직 철밥통의 강심장이 되지는 못하고, 연구의 부진이란 결과적 딜레마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적 비애를 안고 사는 많은 소장 교수들의 마음은 연구에 대한 타는 목마름과 함께 양심의 가슴앓이로 병들고 있다.

IMF 경제로 얼룩진 98년도 지식 기반 세계 경쟁력에 관한 근착 국제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과학기술 지식기반이 28등이라 하였다. 국내 이공계 대학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28등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의 많은 대학들이 사실 선진국의 전문대학 수준인 엄연한 현실을 감안하면, 아니라고 할 교수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에 재직하는 소장 교수들은 해외의 우수한 대학에 유학하여 최근까지 학위연구를 수행하며 세계의 두뇌들과 당당히 경쟁하던 젊은 인재들이다. 그렇지만 귀국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학들의 비참한 연구환경은 어느 누가 나서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해묵은 딜레마이다.

## 과학기술 전쟁의 패잔병

그들중 혹자는 최근까지의 연구경험을 아예 앨범 속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구겨버린다. 혹자는 동분서주하면서 소액의 연구비들을 푼푼이 모

아 청계천이라도 들락거리며 연구장비 하나 만든다고 아까운 세월을 날리고 만다. 혹자는 좀더 운이 좋아서 돈많은 출연연구소 그룹의 시녀가 되어 품팔이식 위탁연구에 안주하며, 최근의 해외연구 경험이란 약효가 떨어지도록 몇년을 버틴다.

소위 한국의 과학기술 전선에 첨병으로 나선, 단발성 외인부대의 외로운 개똥벌레들이다. 그러나 그 첨병들이 귀국하여 연구활동이라고 펼치는 처절한 수색전의 길들은 모두 한 곳으로 통하고 마는 것들! 개똥벌레들의 거대한 공동묘지! 젊으나 젊은 나이에 연구의 고목들이 되어, 과학기술 전쟁의 패잔병으로 낙오하고, 논문전쟁이라는 세계대전 한마당에서 몇년 내에 참패하고 조기퇴출 당하는 것이다. 최근 IMF로 기업구조 조정이다, 퇴출이다 하며 심란한 사회가 되었으나, 과학기술의 학문적 경쟁에서는 무더기 조기퇴출 현상이 전혀 새로운 것 없는 전통이다.

이러한 대학연구의 참담한 전통은 정부의 연구지원정책 난맥에서 비롯한 것이다. 80년대까지 KAIST를 제외한 대학 교수들에게 정부의 연구 지원은 시혜적 차원이었다.

주로 교육부 학술지원재단과 과거 한국과학재단이 소액의 연구비들을 나눠주며 대학 교수들의 불만을 막아오던 것이, 90년경부터 우수연구센터 등의 제한적인 집중지원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나마 안배차원의 선정과 부실한 연구진행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렇다 할 큰 실효를 거둔 것 같지 않다. 한편, 팽배하는 소장 교수들의 연구비 불만을 일부 희석시키는 의미

가 있는 창의과제프로그램이 추진되어, 극소수의 수혜자들에게는 황재라 할만큼 좋은 일이지만 이마저 핵심 공동연구의 길을 막아놓고 있어 일각에서는 비창의적 연구구조라는 비난이 없지 않다. 이를 빌미로 과기처가 소속 출연연구소들의 방만한 예산집행 관행을 은근히 정당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과거의 과기처가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부로 승격하여 다른 부처들과 명목상으로도 어깨를 견주게 된 경사스런 일이 첫돌을 맞았지만, 원래 과기부의 나이는 서른셋이다.

### 연구비 목마른 대학교수들

30대의 사람노릇으로 본다면 공자 말씀대로 '체대로 홀로서기 할 줄 아는' 나이가 찬 것이고 '제 목소리'를 내며 국민의 공감대를 울릴 수 있어야 할 어른스런 나이인 것이다. 그러나 IMF의 98년도에도 과기부는 출연연구소들에게는 1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2만6천명의 목마른 교수들이 있는 전국 이공계 대학들에는 과학재단을 앞세워 그 10%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지원했다. 구태를 탈피하지 못한 출연연구소에 비하여 젊은 인재들이 운집한 대학의 연구가 이렇게 고사하도록 홀대하는 과기부에 어떻게 옳은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국가 출연연구소의 인맥이 포진하여 지금껏 아전인수의 예산집행으로 출연연구소의 태만을 스스로 자초한 과기부에서 옳은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은 연목구어였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전국 주요대학 교수들의 뜻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언

론으로 공론화를 시도하기도 하였었다. 농부가 비 한방울 뿌려주지 않는 하늘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다가 지치면 원망도 하게 마련이다. 과기부라는 우리들의 하늘은 항상 저들의 하늘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원망하여 얻은 것은 걸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연구과제 수혜상의 불이익 뿐이었다. 필자가 그것을 예측 못하거나 두려워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오늘도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언젠가 그 모든 쇠붙이는, 생명샘이 끊어진 껍데기들은 가야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도 이제는 과학기술발전의 걸림돌로 비치는 것을 언젠가 참회할 때가 올 것이기에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과학기술정책 관련 개혁드라이브에 교수들은 일단 기대를 걸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개혁의 방향을 바로잡기 바라며, 예산 분배의 개선책이 발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집행 및 평가는, 주군노릇을 거절하고 올바른 비전을 펼칠 이공계 교수들이 주도해야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의 관료조직 개혁(士), 재벌경제 개혁(富)들은 과거의 군벌개혁과 함께 우리 사회의 군사부(軍士富) 조직 일체를 개혁하는 큰 틀의 개혁으로 승화될 일이다.

### 대학에 3~4천억 배정을

IMF 경제환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시대에 큰 틀의 사회개혁과 맞물려 추진될 것이 과학기술 구조개혁이다. 이는 즉 기술경쟁력의 세계화를 목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기술의 경쟁력만이 과거의 노동집약형 개도국 시대를 벗어나서 선진국형 경제발전을 마련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던 옛시대가 사라진 오늘, 이 사회 전체의 진정한 권위도 인간성을 잃지않는 경쟁력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뼈대는 이공계 대학의 연구 활성화이다. 요절하는 개똥벌레들의 공동묘지행을 차단하여, 그들이 일하는 개미벌레들의 군단으로 부활하게 하라. 기존 규모의 예산에서 3~4천억원 정도를 대학으로 배정하면, 평균셈으로 따져 3~4천만원씩 1만명 정도의 교수들의 연간 연구비가 조달된다. 그러면 3~5인 정도 소규모의 수천개 개미군단 연구그룹들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개미그룹들의 연구개발이 활성화 되는 것이 진정한 과학기술 개혁의 모체가 된다.

기초과학 육성이다, 원천기술 개발이다, 중소기업기술 지원이다, G-7이다, 공업기반기술이다 하며 헛갈리는 소리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혈세만 낭비하던 일들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벤처창업까지 개미군단이 다 해낼 것이다. 과기부는 역할분담 교통정리만 하면 된다. 일 잘하는 개미들을 상주고, 배짱이들을 자동퇴출시키면 저절로 알아서 떨 것이다. 그동안 시설투자가 집중되었던 출연연구소들은 그 연구설비들을 대학에 개방하고, 스스로 개혁하여 제2의 개미군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 나라가 진정 과학기술을 원하는가? 일개미들에게 맡겨 보라, 길몽을 꾸는 날이 올 것이다. ㉟